

# 집단적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 용산참사에 대한 MBC, KBS, SBS 저녁뉴스를 중심으로

임양준\*

(경기대학교 정치매체관리학과 강사)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가 용산참사의 갈등집단으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과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인 경찰 간의 대립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며, 이를 통해 갈등집단에 대한 방송사 간의 보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 3사를 통해 보도된 용산참사 관련 뉴스 총 214건을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텔레비전 보도는 일화 중심적 프레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보도뉴스는 철거민의 불법폭력, 과격시위, 강경투쟁 등 주로 사건중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부족했다. 둘째, 텔레비전 뉴스는 철거민에 대한 사건·사고 등 일화중심 보도를 바탕으로 경찰·검찰 측 주장을 옹호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의견을 내세워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의 가치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경찰·검찰 측 입장을 옹호하면서 사용된 보도뉴스는 법질서와 단순내용 전달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넷째, 텔레비전 뉴스는 검찰의 늦장, 부실, 편파수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철거민과 시민단체의 지적과 주장은 배제하면서, 공정한 수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단순처리 보도하면서 검찰 측 입장을 강조하며 옹호하였다. 이는 방송이 사회적 약자의 의견보다는 권력이 있는 엘리트의 주장과 입장을 보도하면서 그들의 이념을 전파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방송뉴스는 용산참사에 대한 근본 원인과 제도개선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재벌건설사의 위안과 정치적 체제안정이라는 사회적 전통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텔레비전 뉴스가 사회의 보수가치관을 선호하면서 언론사와 상업적 밀착관계인 재벌과 권력집단을 옹호한다는 기존주장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방송사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MBC의 경우 주요 대립집단인 경찰·검찰과 유가족·일반인 측의 입장과 주장을 비교적 균형 있게 보도하였다. 그러나 KBS와 SBS는 철거민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의견보다 정부의 입장인 경찰·검찰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시각을 강조하여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용산참사, 텔레비전 뉴스, 집단적 갈등, 뉴스 프레임, 사회갈등 이슈

## 1. 문제의 제기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갈등에 대한 보도를 통해 갈등 당사자와 수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론은 갈등당사자들의 주장과 요구 그리고 정당성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중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양정혜, 2001). 또한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갈등상황에 대한 다양한 여론과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보도는 다양한 집단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송종길 · 이동훈, 2003). 따라서 사회적 갈등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적 상황에서 엘리트 집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론보도 형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언론은 언론사와 상업적 관계뿐만 아니라, 위계질서의 영향으로 권력기관이나 재벌의 부정 비리를 보도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Bacon, 1995; McChesney, 1999). 또한 언론은 정치 ·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본질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조직적 이유로 사회적 문제와 구조적 배경에 대한 탐사보도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정의철 · 이창호, 2007). 따라서 갈등보도에 있어서 뉴스가 권력 집단을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관행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보다는 고용주를, 시위대보다는 경찰을, 그리고 진보적인 사고보다는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선호하여 보도한다(양정혜, 2001, 287쪽).

갈등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건전한 여론의 조성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우병동, 2005). 이를 위해서 언론은 갈등 이슈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언론이 갈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즉 갈등상황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세력은 다른 상대에 비해 더 큰 담론권력을 차별적으로 누리는데, 언론이 사회적으로 담론권력을 덜 누리는 집단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이준웅 · 김경모, 2005).

이런 관점에서 최근 발생한 용산참사는 갈등주체의 특성상 두드러진 대표적인 사회갈등 현안으로 의미가 크다. 용산참사는 사회의 약자 계층인 도시 철거민집단과 국가기관인 경찰과의 물리적인 대립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철거민과 경찰 간의 갈등과 마찰이 심한 만큼 언론이 각 입장을 어떻게 조명하고 해석하여 보도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사회적 갈등의 주체로서 직접 연관되어 있을 경우,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언론이 갈등보도를 통해 정부나 국가 중심으로 주제만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Gidlin, 1980).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의 언론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현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계 인사들의 소위 낙하산 사장 논란에 휩싸인 KBS와 YTN, 그리고 MBC 민영화 논란,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검찰과 정부의 언론간섭과 통제에 의한 방송사들의 친정부 편향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방송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방송언론이 뉴스보도를 통하여 갈등집단인 철거민 측과 경찰 측과의 갈등상황에서 갈등주체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어떤 형태로 구축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뉴스 텍스트적 분석인 프레임 분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던 용산참사 뉴스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방송뉴스가 용산참사 갈등대립의 주체이자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측 입장과 경찰·검찰을 포함한 정부 측 입장을 어떻게 반영하고 그려내고 있는지, 그리고 용산참사의 이슈에 대한 이해의 틀을 어떻게 수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용산참사와 같이 사회적 과장이 큰 갈등적 이슈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비슷한 갈등이슈에 대한 올바른 보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언론의 사회적 갈등보도 특성

사회적 갈등이란 행위주체 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은 해당분야의 제도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양춘·박상태·서현호, 1996), 한정된 자원의 분배와 유지관리의 문제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윤리적, 감정적, 물리적 갈등을 일으킨 집단 간의 충돌은 뉴스의 흥미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갈등뉴스는 언론의 주요 보도대상이다(Mayeux, 1991). 이에 따라 갈등뉴스는 언론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뉴스의 절반가량이며(김동규, 2000), 신문보다 텔레비전이 갈등뉴스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권혁남, 2001).

사회적 갈등상황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갈등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갈등당사자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거나 정치적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수용자들에게는 언론이 갈등현실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자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김동규, 2000). 따라서 갈등보도 관련 국내외 언론규범인 윤리강령에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양적·질적 균형을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sup>1)</sup> 즉 사회갈등 보도에서 언론은 한 쪽에 편중

1) 예를 들면, MBC 윤리강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양적, 질적 균형을 취해야 한다’라고 규

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균형적 관점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회적 이슈나 문제의 핵심,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보도보다는 집단 간의 단순한 갈등 양상만을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김동규(2000)는 언론의 갈등보도에 대한 특징으로, ① 단순화와 사건중심 보도, ② 물리력 중심의 확대과장 보도, ③ 극단성 강조 보도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원용·이동훈(2005)은 갈등상황에서 언론보도는 ① 주체의 행위관계 중심, ② 부정성, 일탈성 강조, ③ 체제 지향적 가치와 규범을 강조 등의 보도프레임이 주류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는 많은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는 겉으로 드러난 두 집단만의 갈등을 그려내는 전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김동규, 2000). 즉 사회적 갈등에는 이슈의 배경과 속성, 사회적 맥락, 관련 집단들의 규모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복합적인 사회맥락을 간과하거나 단순하게 보도한다는 것이다. 터크먼(Tuchman, 1978)은 언론이 사회적 갈등사태를 보도할 때,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된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론이 갈등의 소강상태에서는 보도비율을 낮추고, 물리력으로 충돌하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전체가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송정민(1992)은 우리나라 언론의 노사 관련 뉴스보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노동자의 과격성과 폭력성을 위주로 한 보도로서 노동자는 사회의 질서나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는 시각으로 묘사, 둘째, 노동자의 사회적 요구를 비합리적이고 억지인 것으로 보도하거나 제반행위를 문제집단의 행위로 보도하는 관행, 셋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파악하여 노동자의 물질적 요구에 보도의 초점을 맞춤, 넷째, 노동자는 민주적인 원칙인 대화나 타협을 부정한다는 식의 보도, 다섯째, 노동자의 주장이나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갈등적 이슈는 공통적인 현실에 대해 갈등 당사자들의 상이한 인식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권혁남(2001)은 분쟁사태에 대한 공정한 보도, 공동체 의식형성, 토론의 장 마련, 갈등의제의 명확한 정리,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 분위기 조성, 조정자로서 역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효성(1996)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중재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언론은 갈등이슈에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도록 다양한 쟁점들을 다뤄야 하며,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인 보도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뉴스

---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라디오 텔레비전뉴스보도책임자협회(Radio-Television News Directors Association)는 보도 강령을 통해 기자의 맥락이 고려된 다양한 의견을 보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신문편집인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의 강령에도 기자의 공정한 보도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경우에도 윤리강령을 통해서 공공이슈에 대한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송종길·이동훈, 2003, 220~222쪽).

프레임 연구는 언론이 현실에 대해 부여하는 특정한 의미를 밝혀내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기에 때문이다(나미수, 2003). 즉 사회적 갈등에 대한 언론의 뉴스 프레임은 갈등의 핵심문제에 대하여 텍스트 내에서 특정한 의미는 허용하면서 다른 의미들은 억압해서 갈등 개입자를 호의적으로 조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탈적 측면을 강조해 주변화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따라서 언론이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슈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 가운데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은 갈등 보도에 대한 조정자로서 갈등 이슈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적인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갈등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해 성급한 해결을 유도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해결이 유도되도록 심층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 2)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과 연구경향

텔레비전 뉴스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코드(code)들이며(Field, 1984), 현실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매체이다(정재철, 2001). 즉 텔레비전 뉴스는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상징적 현실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 상징적으로 반영된 사건이나 사안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Tuchman, 1978; 김원용·황용석, 1995; 김훈순, 1998).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는 외부의 객관적인 사실을 상징적 현실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한 측면을 보다 현저하게 강조함으로써 현실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을 재창조하는 매개체이다.

이와 더불어 텔레비전 뉴스는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터크만(1978)은 뉴스라는 것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뉴스내용을 객관적인 보도인 것처럼 변형시켜 보편적인 정보로 포장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훈순(1998)은 텔레비전 뉴스에 의하여 재구성된 현실은 사회의 권력관계의 표현으로 특정 개인, 집단, 계급의 의견과 가치가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백선기(2000)는 텔레비전 뉴스를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과정 및 결과라고 규정하였다(김선남, 2002, 재인용 46쪽).

뉴스가 현실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동원되는 기제인 뉴스 프레임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즉 뉴스 프레임은 뉴스과정의 틀을 통하여 특정한 주제나 조직 및 집단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덜 부각시키게끔 재현된 현실의 중요한 요소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선남, 2002). 뉴스 프레임에 대하여 기틀린(1980)은 뉴스 프레임이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hegemonic ideology)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핵심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뉴스 프레임이 구성하는 현실은 제도화된 현실이며, 특정 관점이나 해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패권 투쟁에 의하여 가공된 현

실이라는 것이다(송용희, 2005). 뿐만 아니라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의 특정 부분을 강조·확대하고 다른 부분은 축소·은폐함으로써 수용자의 해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갠슨과 모디글리아니(Gamson & Modigliani, 1989)는 미디어가 사건과 사실들을 일정한 패턴으로 조작하여 수용자에게 이해 가능한 현실로서 조작하여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프레임의 이러한 특징과 역할을 바탕으로, 엔트만(1993)은 뉴스 프레임이 특정문제에 대해 정의를 내리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며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프레임 분석은 뉴스텍스트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접근법 가운데 하나이며(나미수, 2003), 최근까지 미디어 프레임 연구는 텍스트의 분석적 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뉴스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데 유용한 미디어 프레임 연구는 뉴스 구성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뉴스내용에 중점을 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김훈순, 1998).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는 아이엔거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의 일화적 프레임과 주제적 프레임을 들 수 있다. 일화적 프레임은 개별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며, 주제적 프레임은 이슈나 사건의 사회구조나 역사적 배경 등 심층보도로 보다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레임이다. 아이엔거와 사이먼(1993)은 걸프전에 관한 뉴스보도 연구를 통해 언론이 일화적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외교적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군사적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는 달리 뉴스 내용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뉴스텍스트에 나타나는 중요한 프레임 기제를 밝히고 뉴스 프레임의 이데올로기적인 현실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틀린(Gitlin, 1980)은 1960년대 중반 학생운동에 대한 미국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뉴욕타임스』와 CBS는 초기에 학생단체를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이후에 엘리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자 보도 프레임을 바꾸어 부정적인 학생운동으로 묘사하거나 참가자들을 격하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엔트만(Entman, 1991)은 미국의 이란 여객기 격추 사건과 소련의 대한항공 격추사건을 분석한 결과, 언론이 비슷한 두 사건에 대해 차별적인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뉴스보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심개념과 은유, 상징, 시각적 이미지 등을 분석한 결과, 언론이 미국에 의한 이란 여객기 격추는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반면, 소련의 대한항공 격추는 도덕적인 분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미국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도함으로써 뉴스 프레임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프레임 분석연구로는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커뮤니케이

2)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또 다른 형태로 수용자 효과연구이다. 수용자 효과연구는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현실인식이나 판단,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뉴스 프레임의 차이가 사람들의 지각이나 여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cComb & Shaw, 1972). 그러나 뉴스 프레임 효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분분한데 이는 뉴스 프레임이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며, 프레임 효과의 범위나 인지적인 메커니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준용, 2000).

터, 텍스트, 수용자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정혜(2001)는 일간신문 보도의 의료분쟁 관련 연구결과, 신문이 뉴스 프레임을 통해 의사보다 정부에게 더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고, 의사는 비도덕적·비윤리적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언론이 기존 집단이나 권력집단의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철(2001)은 뉴욕 테러사건의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 군사적 보복주의, 과격주의, 결사항전, 극단적 대립 프레임을 밝혀내고, 한국의 9·11 보도가 선정적이며 미국 측의 입장을 지향하는 편향보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남(2002)의 매매춘 관련 TV뉴스 프레임 연구에서 방송 보도기자들이 법질서 추구 및 도덕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며, 책임 프레임을 통해 책임을 개인 일탈행위로서 여성에 귀인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중적인 성역할 모델은 사실상 가부장제의 기존 질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데올로기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미수(2004)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의 전국과 지역 뉴스를 비교한 연구에서 지상파 방송의 전국 및 지역뉴스를 분석했는데 핵폐기장 유치 이슈가 국가 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 간 분쟁으로 규정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프레임 연구들은 언론이 사회적 갈등이슈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요 프레임을 밝혀냄으로써 갈등이슈가 어떤 시각으로 이해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엔트만(Entman, 1993)은 미디어에 의해 강조되는 프레임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하며,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강내원,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용산참사라는 특정 갈등사안에 대하여 방송뉴스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측과 경찰·검찰 측 입장을 어떻게 반영하여 보도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보도를 통해 나타난 뉴스 프레임과 갈등집단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우리사회의 대표적 갈등사안인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분석함으로써 동일문제에 대한 방송사들의 각기 다른 보도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방송을 통해 사용된 보도프레임을 파악함과 동시에 방송에서 인용된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논의되었던 복잡한 이해관계와 주장들을 다양한 입장에서 살펴 보기 위해 뉴스보도에서 강조되고 부각된 주요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1>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용산참사 관련 방송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의 특성은 무엇인가?

뉴스 프레임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 갈등이슈가 누구의 입장과 관점에서 프레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은 뉴스보도에서 인용되고 있는 주요 행위자들을 통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스보도가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집단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한 입장과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2: 용산참사 관련 뉴스보도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어떻게 틀 지워졌는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회적 갈등사안에 대한 뉴스보도는 방송사의 입장이나 보도관행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 방송사별로 집단의 입장표명에는 주로 어떠한 프레임이 부각되고 있는가를 살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3>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3: 용산참사 관련 뉴스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방송사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분석대상과 기간

본 연구는 문화방송(MBC), 한국방송공사(KBS), 그리고 서울방송(SBS)의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 <9시뉴스> 그리고 <8시뉴스>를 대상으로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보도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뉴스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 뉴스가 매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의 황금시간대에 편성된 종합뉴스 프로그램으로써 뉴스시간이 가장 길고 시청률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강명구, 1990; 이은미 · 이종수, 1995).

또한 분석기간을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선택한 이유는 용산참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의 최종 공식수사 결과가 발표된 시기이기 때문이다.<sup>3)</sup>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텔레비전 방송사는 망루의 화재발생 원인, 철거민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그리고 검찰의 부실수사 등 철거민 유족 측과 경찰 · 검찰 측간의 대립과 공방에 대한 집중보도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를 위해 분석된 보도뉴스의

3)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했으며, 검찰의 공식 수사결과 발표일은 2월 9일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사건진압의 책임자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총장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날은 2월 10일이다.



양은 MBC <뉴스데스크>가 77건(36.0%), KBS 1TV의 <9시뉴스>가 67건(31.3%), 그리고 SBS의 <8시뉴스>가 70건(32.7%)으로 총 214건이었다.

### 3) 뉴스 프레임 분석절차

용산참사에 대한 보도를 구성하는 뉴스 프레임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갈등보도에 대한 뉴스구성의 특성상 뉴스 프레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식도 뉴스 텍스트가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전제에 근거한 것이다(양정혜, 2001). 이에 따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 분석을 위해 뉴스보도를 일화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일화중심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례가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공적 이슈를 틀 짓는 방식이다. 일화중심 프레임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두며, 사건현장의 인터뷰를 통해 극적인 요소나 시각적인 요소 등 사건발생의 묘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용산참사 내용 중 전철연의 화염병 투척, 경찰의 과잉진압, 시너에 의한 화재 현장 폭력과 난동에 의한 현장보도 등이다.

반면에 주제중심 프레임은 사건발생에 대한 사회구조, 역사적 배경 등 추상적인 상황에 이슈를 위치 지우는 보도의 틀로서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중점을 두어 보도하는 방식이다(김훈순, 1999; 양정혜, 2001). 다시 말해, 뉴스의 보도형식이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재건축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대한 행정제도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보도기사이다. 또한 일화+주제 중심적 프레임으로는 사건 중심적 혹은 주제중심 유형이 명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구분되지 않거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된 경우이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레임 판별기준은 보도뉴스에 대한 핵심주제어를 그 텍스트의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핵심주제는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아이디어로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양정혜,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내용의 프레임 요소를 미리 선택하여 유형화한 후에 내용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뉴스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선택성과 현저성이 반복되거나 또는 강조된 핵심 주제어의 형태나 의미가 포함된 프레임 유형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214개 뉴스를 바탕으로 8개의 뉴스 프레임 유형을 판별해 냈다. 신뢰도 검정을 위해 내용분석에 참여한 두 명의 대학원생이 코딩한 자료를 바탕으로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종합적 신뢰도 계수는 .82로 산출되었다.

## 4. 연구결과

### 1)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특성

#### (1) 형식적인 측면의 프레임 유형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의 프레임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화중심 프레임(80.4%)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일화+주제 프레임(14.5%)과 주제중심 프레임(5.1%)은 대체로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용산참사 보도에서 일화중심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갈등집단 간의 상이한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이라는 대규모 국가 공권력이 철거민이라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요사태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무리하게 투입시켜 작전하였기 때문이다.<sup>4)</sup> 이런 과정에서 방송뉴스는 철거민들의 과격한 시위, 그리고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원들이 사용한 휘발유성 시너와 새총 그리고 화염병 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불법·폭력과 강경투쟁 장면을 집중보도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제중심의 프레임 보도비율(5.1%)이 매우 낮다는 것은 용산참사의 발생원인인 부분별한 도시정비사업 정책, 경찰진압의 법·제도적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강압통치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의 근본적 발생배경에 대한 계획적이고 심층적인 취재보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5)</sup>

〈표 1〉 용산참사 보도에 대한 프레임 유형 (단위: 건수(%))

방송보도 프레임 유형	MBC	KBS	SBS	합계
일화중심	59(76.6)	55(82.1)	58(82.9)	172(80.4)
주제중심	5(6.5)	4(6.0)	2(2.9)	11(5.1)
일화+주제	13(16.9)	8(11.9)	10(14.3)	31(14.5)
합계	77(100.0)	67(100.0)	70(100.0)	214(100.0)

$\chi^2=43.62, df=4, p<.05$

- 4) 언론은 경찰이 50여 명의 철거민을 향해 테러진압을 주입무로 하는 경찰특공대 등 1600여 명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시가전 벌이듯 작전을 벌인 점과 관련해 경찰의 행동이 법이 정한 원칙을 어긴 셈이라며 오히려 경찰이 철거민을 상대로 테러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용산참사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라(2009. 1. 22). 『한겨레』, 36].
- 5) 용산참사의 근본 바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티·케이(대구·경북) 편중인사, 공안통치, 강부자’에 대한 기본철학이 깔려 있다. 이를 반증하는 세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이념 콤플렉스다.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 잠시 학생운동을 했다가 감옥에 간 일이 있다. 그 뒤 건설회사에 들어가서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적대감을 표시하곤 했다. 대통령 당선 뒤 바로 이 이념 콤플렉스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둘째, 최소 지지를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지지가 10%대까지 추락하자, 단기적인 지지율 반등을 위해 ‘오른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성한용(2009. 1. 29). 청계천 이명박, 용산 이명박. 『한겨레』, 23].

## (2) 내용적 측면의 프레임 유형

용산참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적 갈등과 폭력에 대한 보도의 특성상, 개별 뉴스보도에서 한 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 프레임에 내재해 있는 핵심구성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레임의 유형을 판별하여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의 프레임은 책임규명, 폭력난동, 갈등대치, 정치적 성향, 법질서, 인간흥미, 단순내용전달 그리고 진실규명 프레임 등 총 8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프레임은 사회적·집단지적 갈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프레임들로 나타났다. 이들 프레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 책임공방 프레임은 용산참사에서의 화재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으로 철거민과 경찰 측 간에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둔 보도이다. 책임규명 프레임은 용산참사 보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망루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철거민 유족들과 진압작전을 수행했던 경찰·검찰 간의 책임공방으로 용산참사 내내 주된 논란대상이었다.

둘째, 폭력난동 강조 프레임은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철거민과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에서 발생한 프레임으로 불법적·일탈성 행동을 강조하여 보도한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 자극적·선정적 어휘를 사용해 불법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원용·이동훈, 2005). 일화 중심적 프레임 보도에서 폭력난동 강조 프레임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갈등대치 강조 프레임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립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물리적 충돌 등의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김원용·이동훈, 2005). 이는 용산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그리고 해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시민단체 등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며 갈등현안을 다룬 보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프레임이다.

넷째, 정치적 성향은 용산참사에 대한 사안을 정치적 또는 이념적 문제로 해석하여 처리하거나 해결하려는 프레임이다. 정치적 성향은 특히 갈등 당사자인 철거민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단체 등 일반인들의 입장을 배제한 반면, 정부관계자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등 용산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당 간의 입장과 주장만을 강조하여 보도한 경우이다.

다섯째, 법질서 강조 프레임은 용산참사 처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반발하는 철거민, 숨진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이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등 주로 행정부 당국자와 경찰관계자들의 법과 질서 준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여 보도한 경우이다.

여섯째, 인간흥미 프레임은 사람들의 동정심, 감성, 놀라움 등의 감성적 측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분석하는 프레임이다. 즉 뉴스가 용산참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이러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개인의 사적인 일화적 스토리나 영상 또는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프레임으로 수용자로 하여금 동정심, 놀라움 그리고 불안감 등의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도이다.

일곱째, 단순내용전달 프레임은 용산참사와 관련된 갈등주체들 가운데 주로 경찰이나

〈표 2〉 방송사별 프레임 비교 (단위: 건수(%))

프레임유형 \ 방송유형	MBC	KBS	SBS	합계
화재 책임공방	24(31.2)	13(19.4)	20(28.6)	57(26.6)
폭력난동 강조	10(13.0)	12(17.9)	11(15.7)	33(15.4)
갈등대치 강조	7(9.1)	8(11.9)	7(10.0)	22(10.3)
정치적 성향	2(2.6)	6(9.0)	10(14.3)	18(8.4)
법질서 강조	2(2.6)	5(7.5)	3(4.3)	10(4.7)
인간흥미	7(9.1)	5(7.5)	4(5.7)	16(7.5)
단순내용 전달	9(11.7)	12(17.9)	8(11.4)	32(15.0)
진실규명 촉구	11(14.3)	4(6.0)	5(7.1)	20(9.3)
기타	5(6.5)	2(3.0)	2(2.9)	6(2.8)
합계	77(36.0)	67(31.3)	70(32.7)	214(100.0)

$\chi^2=286.47, df=4, p<.05$

검찰 측의 발표와 주장에 대하여 사실 검증이나 심층보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단순내용 전달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이다. 특히 단순전달 프레임은 주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한나라당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유리한 보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은 방송이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에 대한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보도내용이다. 특히 진실규명 프레임은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실규명 프레임은 경찰의 철거민 진압과 관련하여 경찰 측 책임, 그리고 경찰 지도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 뉴스보도의 주요행위자 분석

언론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유사한 성향의 정보원을 통해 의견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언론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뉴스 면에 직접적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사실, 특집기획 그리고 논평 등 의견 면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암묵적으로 개진하기도 한다(심훈, 2004). 특히 사설란 등과 같은 의견 면이 없는 방송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주요행위자나 인터뷰 대상자에게 의탁하여, 그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방송사가 용산참사의 직접적 갈등집단인 철거민 측, 또는 경찰 측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표출하기 위하여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도했는지 주요행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주요행위자 빈도수

전체 분석대상 뉴스 가운데 주요행위자로서 경찰·검찰(25.2%)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이어서 철거민 유가족(20.6%), 그리고 정부(15.6%)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3.3%), 시민단체(8.0%) 그리고 일반인(8.3%)은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방송사별 주요행위자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MBC 뉴스는 경찰·검찰(30.4%)의 비율이 높았으며, 유가족(27.7%) 그리고 일반인(10.7%) 순으로 나타났다. KBS 뉴스의 경우, 경찰·검찰(21.6%), 한나라당(17.6%), 그리고 유가족(16.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SBS 뉴스는 경찰·검찰(23.4%)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한나라당(18.8%), 그리고 유가족(17.2%)으로 나타났다.

방송보도의 경우, 직접적 갈등주체 당사자이며 주요행위자로서 경찰·검찰(77건)의 주장이 전체보도의 4분의 1로 가장 많이 보도된 반면, 철거민 유가족(62건)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요행위자의 빈도수 면에서, 방송이 유가족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특정 집단인 경찰·검찰의 의견과 주장만을 강조하여 보도한 경우라고 하겠다. 또한 방송뉴스는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갈등주체 이외의 주변 집단인 일반인,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여론을 보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결국 이런 유형의 단순화는 곧 개별사건 중심의 보도를 낳게 되는데, 다양한 여러 집단의 여론을 반영한 설명이 없는 보도는 일부 집단 간의 문제로 표상하기 쉽다(이준웅, 2001). 그 결과 수용자는 용산

〈표 3〉 방송사별 프레임 비교\* [단위: 빈도(%)]

방송유형		MBC	KBS	SBS	합계
주요행위자	행정부	4(3.6)	4(3.2)	2(3.1)	10(3.3)
	한나라당	4(3.6)	22(17.6)	12(18.8)	38(12.3)
	경찰·검찰	34(30.4)	27(21.6)	15(23.4)	76(25.2)
	국회의원(야당)	10(8.9)	11(8.8)	9(14.1)	30(10.0)
	철거민 유가족	31(27.7)	20(16.0)	11(17.2)	62(20.6)
	시민단체	4(3.6)	15(12.0)	5(7.8)	24(8.0)
	용산구청	2(1.8)	4(3.2)	0(0)	6(2.0)
	용역관계자	1(.9)	7(5.6)	1(1.6)	9(3.0)
	전문가	2(1.8)	5(4.0)	3(4.7)	10(3.3)
	일반인	12(10.7)	9(7.2)	4(6.3)	25(8.3)
	기타	8(7.1)	1(.8)	2(3.1)	11(3.7)
	합계	112(37.2)	125(41.5)	64(21.3)	301(100.0)

\* 주요행위자 및 인터뷰대상자 중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검찰·검찰은 경찰특공대를 포함하며, 국회의원(야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선진자유당을, 시민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실련, 언론 지키기 천주교 모임, 용산참사 범국민 대책위 등을, 용산구청은 용산구청 관계자를, 전문가는 소방전문가, 주거전문가, 진상조사단인 변호사를, 그리고 기타에는 소방관, 부동산업자, 뉴타운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참사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의 집단 문제로 왜곡되어 인식할 수 있다.

(2)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용산참사 뉴스보도에 나타난 각 주요 행위자별로 프레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먼저 용산참사의 갈등 당사자인 경찰·검찰의 경우, 책임공방(26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단순전달(11건), 인간흥미(11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책임공방>단순전달>인간흥미). 그러나 철거민 유가족의 경우, 폭력난동(17건), 인간흥미(15건) 그리고 갈등대체(9건)의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폭력난동>인간흥미>갈등대체). 또한 한나라당의 경우, 정치적 성향(19건)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정치성향>책임공방>갈등대체), 민주당 등 야당은 책임공방(10건)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책임공방>정치성향>진실규명).

프레임별로 주요 행위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책임공방과 관련하여 보도된 주요 행위자로는 주로 경찰·검찰 측과 국회의원(야당) 측 간의 공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표 4> 주요행위자의 프레임 분석 (단위: 빈도(%))

프레임유형 주요행위자	책임 공방	폭력 난동	갈등 대체	정치적 성향	법 질서	인간 흥미	단순 전달	진실 규명	기타	합계
정부	행정부	3 (4.1)			2 (7.1)	4 (26.7)	1 (4.0)			10 (3.3)
	한나라당	8 (11.0)		7 (20.6)	19 (67.9)	2 (13.3)	1 (4.0)	1 (2.9)		38 (12.6)
경찰·검찰	26 (35.6)	10 (22.7)	2 (5.9)	1 (3.6)		11 (35.5)	11 (42.3)	10 (28.6)	5 (33.3)	76 (25.2)
민주당 외(야당)	10 (13.7)	1 (2.2)	4 (8.8)	7 (25.0)	1 (6.7)		1 (4.0)	5 (14.3)	1 (6.7)	30 (10.0)
철거민·유가족	9 (12.3)	17 (37.8)	9 (26.5)		1 (6.7)	15 (48.4)	5 (20.0)	6 (17.1)		62 (20.6)
시민단체	7 (9.6)	1 (2.2)	6 (17.6)			2 (6.2)	2 (8.0)	4 (11.4)	2 (13.3)	24 (8.0)
용산구청		4 (8.9)						2 (5.7)		6 (2.0)
용역관계자		2 (4.4)	2 (5.9)				2 (8.0)	3 (8.6)		9 (3.0)
전문가	3 (4.1)	1 (2.2)	2 (5.9)				2 (8.0)	1 (2.9)	1 (6.7)	10 (3.3)
일반인	7 (9.6)	6 (13.3)	2 (5.9)		3 (20.0)	3 (9.7)	1 (4.0)	2 (5.7)	1 (6.7)	25 (8.3)
기타		3 (6.7)			3 (20.0)			1 (2.9)	5 (33.3)	11 (3.7)
합계	73 (24.3)	44 (14.6)	34 (11.3)	28 (9.3)	15 (5.0)	31 (10.3)	26 (8.3)	35 (11.6)	15 (5.0)	301 (100.0)

한 폭력난동 프레임과 관련하여 보도된 주요행위자로는 주로 경찰과 철거민 유가족 측 간 공방, 그리고 진실규명 프레임의 경우, 경찰검찰,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시민단체들 간 주요한 대립각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뉴스보도는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경제적 등 구조적인 근본 원인보다는 갈등당사자인 경찰과 철거민 유가족,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주로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면, 화재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새총 사용, 골프공과 화염병 투척 등에 대한 서로 간의 책임전가 등에 따른 치열한 갈등대체 프레임에 대한 뉴스보도를 강조하여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 갈등적 사태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층취재 보도보다는 사망자와 부상자 병원 주변, 그리고 유가족의 설날 분위기와 영결식장 분위기에 대한 스케치 기사 등 감성적 측면의 인간흥미 보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경찰의 등장 빈도수는 매우 높은 반면, 철거민 유가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산참사에서 철거민 유가족이 비록 직접적 갈등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문제들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탐사보도를 정치·경제·사회적 그리고 조직적 이유로 배제(정의철·이창호, 2007)하여 주요행위자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 3) 방송사별 프레임 분석

용산참사 보도를 통해 각각의 분석대상 방송사별로 프레임에 따라 어떤 행위자가 등장하여 이슈에 대한 어떠한 입장과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 (1) MBC <뉴스데스크>의 주요행위자

MBC 9시뉴스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행위자는 경찰·검찰(34건)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어서 철거민 유가족(31건)과 일반인(12건)이 주요행위자로 조사되었다. MBC 뉴스의 경우, 용산참사 갈등당사자인 경찰·검찰 집단과 철거민 집단 간의 주요행위자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 여당(8건)과 야당 국회의원(10건)도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보도되었다. 이는 MBC 뉴스가 용산참사에 대한 주요행위자의 보도 빈도수를 통해 갈등당사자 집단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과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행위자에 대한 프레임 유형을 살펴보면, 경찰·검찰(10건)과 철거민 유가족(5건)의 경우, 책임공방 프레임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화재원인에 대한 책임공방 프레임은 이번 용산참사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한 경찰 측과 유가족들 간의 갈등대립으로, 경찰은 총 6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원인이 철거민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이 옮겨 붙은 화재라고 주장(10건)한 반면, 철거민 측(5건)은 경찰이 과잉진압으로 참사를 초래했다는 반박

이다. 책임공방 보도에 대하여 MBC 뉴스는 용산참사에 대한 수사주체로서 매체 접근성이 유리한 경찰·검찰 측 행위자 비율이 철거민 유가족 측 행위자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는 철거민 유가족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의 의견과 주장(5건)을 적극 수용하여, 두 주요 대립집단인 경찰·검찰 측과 유가족 측에 대하여 비교적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철거민과 유가족들 측의 행위자에 대한 폭력난동 강조 프레임(9건)과 관련한 보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난동에 대한 유가족 측의 행위자 비율이 높은 원인은 유가족들이 철거민 농성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섯 명의 철거민 사망자가<sup>6)</sup> 발생한 원인과 관련하여,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시너와 화염병 등으로 인한 진압적전의 위험성은 미리 알았는지, 진압 관련 내부수칙은 지켰는지, 농성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시하면서 경찰 측을 상대로 유가족들의 과격한 행위들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거민의 폭력난동 프레임은 경찰과 검찰 등 국가 공권력에 대하여 경찰의 책임과 사망자에 대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유가족들의 주장에 대한 거친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MBC 뉴스의 보도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20건)에 대한 행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규명 보도를 통해 나타난 주요행위자의 의견도 정부·검찰·경찰 등 공권력 집행의 주체들의 비율(10건)과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유가족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인들의 주장(7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MBC 뉴스는 용산참사에 대한 사실규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행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바탕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MBC 뉴스에 나타난 주요 행위자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경찰 이미지의 경우 용산참사를 통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을 제공한 책임 집단으로서 의미화하고 있다. 즉,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시너와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경진압 작전을 집행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비도덕적인 원인제공 주체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철거민 농성자들을 위한 안전조치 준비소홀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무리한 강경진압 vs. 위험물질 탕”(2009. 1. 20), “검찰, 경찰 시너 위험 알고도 철거민 진압강행”(2009. 1. 21), “왜 피해 컸나?...무리한 진압작전”(2009. 1. 20), 그리고 “검찰, 진압경찰 혐의 검토 무리한 진압 핵심”(2009. 1. 22) 등이다.

그러나 철거민 유가족 측에 대한 이미지로는 도시 재개발의 직접적인 희생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즉 MBC 뉴스는 철거민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요구를 위해 농성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관심대상임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때문에 정부나 언론으로

6) 용산참사의 사망자는 총 6명으로, 그 가운데 5명은 철거민과 관련된 농성자들이며 나머지 1명은 경찰특공대원이다.



〈표 5〉 MBC 〈뉴스데스크〉의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단위: 건수)

주요행위자	프레임유형	화재책임	폭력난동	갈등대치	정치적	법질서	인간	단순	진실규명	기타	합계
		공방	강조	강조	성향	강조	흥미	전달	추구		
정부 (여당)	행정부	2				2					4
	한나라당	1		2					1		4
	경찰·검찰	10	9				6	4	5		34
	국회의원(야당)	4						1	4	1	10
	철거민 유가족	5	9			2	11		4		31
	시민단체	2							2		4
	용산구청		2								2
	용역관계자								1		1
	전문가	1	1								2
	일반인	5	1				2	1	2	1	12
	기타		2						1	5	8
	합계	30	24	2	0	4	19	6	20	7	112

$\chi^2=362.86, df=8, p<.05$

부터 외면당하는 사회적 약자로 보도하였다. 예를 들면, “기댈 곳 없는 철거민, 철저히 외면 당했다”(2009. 1. 23), “처참한 사고현장…철거민 울분 유족오열”(2009. 1. 20),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 유가족 오열”(2009. 1. 20), 그리고 “눈물로 보낸 용산 유가족들의 설날”(2009. 1. 26) 등으로 보도되었다.

## (2) KBS 〈9시뉴스〉의 프레임 구성

KBS 9시뉴스에서 경찰·검찰(26건)이 중요행위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나라당(21건) 그리고 철거민 유가족(2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 뉴스는 중요행위자로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다수 등장시켰는데, 이는 KBS 뉴스가 용산사태 해결을 위해 집권여당의 시각을 많이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 책임공방 프레임에 대한 중요행위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찰·검찰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인 정부·여당 측 행위자 보도가 총 14건으로 시민단체와 야당의원 등 유가족 측의 8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KBS 뉴스가 철거민 측 입장보다 주로 경찰 측 주장인 철거민의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사망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재에 대한 책임공방 프레임에서의 철거민 주장(2건)은 거의 부각되지 않은 대신 폭력난동(6건)과 갈등대치 프레임(6건)에서 높은 빈도로 보도되었다. 이는 KBS 뉴스가 철거민과 유가족을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연결시켜 보도하면서, 철거민과 전철연 두 집단을 불법과 폭력집단으로 묘사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

〈표 6〉 KBS 〈9시뉴스〉의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단위: 건수)

주요행위자	프레임유형	화재책임 공방	폭력난동 강조	갈등대치 강조	정치적 성향	법질서 강조	인간 흥미	단순 전달	진실규명 촉구	기타	합계
정부 (여당)	행정부				2	2					4
	한나라당	5		2	14	1					22
	경찰·검찰	9	2	2	1		2	5	2	3	26
	국회의원(야당)	3	1	2	4	1					11
	철거민유가족	2	6	6		1	2	3	1		21
	시민단체	3	1	4		2	2		1	2	15
	용산구청		2						2		4
	용역관계자		2	2				1	2		7
	전문가	2	1	1					1		5
	일반인	2	3	1		2	1				9
	기타		1								1
	합계	26	19	20	21	9	7	9	9	5	125

$\chi^2=406.35, df=8 p<.05$

다. 또한 KBS 뉴스가 전철연의 과격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을 뿐만 아니라, 농성자금 6천만원 모금정황 등을 보도하는 등 주로 철거민과 관련한 전철연의 과격한 투쟁방식에 프레임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KBS 보도가 농성자들이 순수한 철거민이 아니라 전철연 등 불순한 외부세력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개입으로 농성이 불법양상을 띠었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의 강경한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보도로 정부의 논리를 대변한 사례이다.

KBS 9시 뉴스의 보도 프레임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진실규명에 대한 주요 행위자의 비율이 방송 3사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이다. KBS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하면서, 검찰수사가 경찰의 진압작전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해석된다며 주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단순처리한 채 보도하였다. 따라서 KBS가 용산참사의 발생 배경이나 정치·경제적 근본 원인 등에 대한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수사주체인 경찰과 검찰 입장만을 편향적으로 보도한 점은 KBS 뉴스가 용산사태에 대한 여론을 공권력의 집행 주체인 경찰·검찰, 정부 측에 유리한 정치적 방향으로 이끌어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방송언론이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지지를 지양하고 균형적 보도방향을 유지하여 갈등상황에서 언론이 중재역할(김동규, 2000)을 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 역할에 미흡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KBS 뉴스를 통해 보도된 경찰의 이미지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KBS 뉴스는 경찰 특공대의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에 있어 경찰청장 내정자의 책임론과 더불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라는 면책론이 동시에 부각되었다. 책임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김석기 내정자, 이번 주 사퇴할 듯”(2009. 1. 21),

“선 진상규명, 원세훈·김석기 파면”(2009. 1. 20), “검찰, 경찰청 전격 압수수색”(2009. 1. 30), 그리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결국 자진사퇴”(2009. 2. 10) 등이다. 이어서 경찰 면책론에 대한 보도로는, “검찰, ‘경찰은 법적 책임 없어’ 면죄부”(2009. 2. 9), “이 대통령, 김석기 내정 철회할 때 아니다”(2009. 1. 31) 그리고 “검찰, 용산사건 과잉진압 의혹, 무혐의 가닥”(2009. 2. 2) 등이다.

그러나 철거민과 유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 측면의 경찰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일관성 있게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 즉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의 원인이 재개발 보상비 때문이라며 이는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은 전철연과 연관되어 전문 시위꾼으로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묘사되어 보도되었다. 보도사례를 살펴보면, “철거민 보상비 놓고 극한 반발”(2009. 1. 20), “‘폭력강경 투쟁’ 전철연은 어떤 단체인가”(2009. 1. 21), “검찰, 전철연 의장이 주도적 역할”(2009. 1. 21), 그리고 “용산참사 재구성, 시너·화염병이 원인”(2009. 2. 9) 등으로 보도되었다.

### (3) SBS <8시뉴스>의 프레임 구성

SBS 뉴스에서는 경찰·검찰(17건)과 철거민 유가족(14건)이 주요 행위자로 나타나 이들 간의 갈등이 보도의 중심이 되었던 대립프레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SBS 뉴스는 KBS 뉴스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13건)의 행위자가 야당 국회의원(9건)의 수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검찰의 행위자도 철거민 유가족보다 더 자주 보도되어, 주로 정부와 경찰의 주장이 더 강조되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BS 뉴스는 시민단체(5건), 전문가(3건) 그리고 일반인(4건)의 인용보도 건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용산참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BS 뉴스의 경우, 폭력난동 행위자 프레임(9건)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검찰의 행위자(5건)가 철거민(2건) 행위자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SBS 뉴스가 폭력난동에 대한 보도에서 철거민 측 입장보다 경찰·검찰 측 입장에 더 무게를 둬으로써 철거민의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경찰 측 주장을 옹호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SBS 뉴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6건)보다 특정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검증이나 심층보도가 아닌 단순보도 행위자 프레임(9건) 보도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SBS 뉴스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단순처리 보도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SBS 뉴스는 경찰의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용역직원은 없었다는 주장, 추후에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검찰의 전철연 배후설에 대한 집중 보도, 그리고 망루 안에서 철거민이 뿌린 액체는 시너이며 이는 경찰특공대원도 시너냄새를 맡았다는 발언을 근거로 화재원인에 대한 철거민 측 책임론을 주장한 검찰 측의 수사내용에 대하여 문제제기나 사실규명 없이 간단하게 처리하여 단순보도한 경우이다. 따라서 SBS 뉴스는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불법용역 직원 동원 의혹, 농성자들의 뿌린 액체에 대한 진실공방,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편파와 부실 수사 등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심층

〈표 7〉 SBS 〈8시뉴스〉의 주요행위자 프레임 구성 (단위: 건수)

주요행위자	프레임유형	화재책임 공방	폭력난동 강조	갈등대치 강조	정치적 성향	법질서 강조	인간 흥미	단순 전달	진실규명 촉구	기타	합계
정부 (여당)	행정부	1						1			2
	한나라당	2		3	5			1			11
	경찰·검찰	5					3	1	3	1	15
	국회의원(야당)	3		2	3				1		9
	철거민 유가족	2	2	3			2	4	1		12
	시민단체	2		2				1			5
	용산구청										0
	용역관계자							1			1
	전문가			1				1		1	3
	일반인		2	1	1						4
	기타									2	2
	합계	15	4	12	9	0	5	10	5	4	64

$\chi^2=273.72$ ,  $df=8$ ,  $p<.05$

취재 없이 검찰을 포함한 주로 정부 측 입장만을 유리하도록 단순보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SBS 보도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SBS 뉴스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행위자 프레임(9건)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SBS의 경우, 정치적 성향에 대한 주요행위자 비율로 한나라당인 여당(5건)이 민주당 등 야당(3건)보다 높았다. 이는 SBS 뉴스가 용산참사에 대한 화재원인과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심층보도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행위자들을 내세움으로써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용산참사에 대한 사회적 의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BS 뉴스의 경찰·검찰 이미지는 KBS 뉴스와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다. 즉 경찰의 경우, 강경 진압작전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혐의 처리되어 정당한 사회질서 수호자로 인정되어 보도되었다. 구체적인 보도사례를 살펴보면, “용산참사 누구 탓, 58% 과잉진압 책임 크다”(2009. 2. 24), “경찰, 용산철거 과잉진압 무혐의 가닥”(2009. 2. 2), 그리고 “진압작전에 아쉬운 점 있지만...경찰 무혐의”(2009. 2. 9) 등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철거민 유가족의 이미지는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세입자의 보상금 논란에서 비롯되었으며, 강경하고 부도덕하며 폭력적인 시위꾼 집단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원인은...화염병 던졌나? 떨어뜨렸나?”(2009. 2. 22), “검찰, 화염병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27명 기소”(2009. 2. 9), “용산철거민 시위에 ‘전철연’은 왜 개입했나?”(2009. 2. 22), “전철연 깊숙이 관여...배후설 입증 못해”(2009. 2. 9), 그리고 “용산참사 유가족들, 검찰청사안에서 항의농성”(2009. 2. 3) 등으로 보도되었다.

## 5. 결론 및 요약

본 논문은 언론보도가 갈등집단과 갈등상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상징적 환경과 의미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사회적 갈등의 특성상 언론은 특정측면을 강조하거나 또는 다른 측면을 생략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권력집단을 체계적으로 옹호하는 관행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주체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은 주로 노동자보다는 고용주를, 시위대보다는 경찰을, 그리고 진보적 사고보다는 보수적 사회 가치관을 선호하여 보도한다는 것이다(양정혜,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이 최근 발생한 용산참사의 대립집단인 철거민과 경찰 측간의 갈등을 어떠한 시각과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 뉴스 프레임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뉴스 프레임이 양적·질적 분석을 포괄하여 텔레비전 뉴스가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구성하고, 보도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거나 생략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방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용산참사 내용을 보도한 MBC <뉴스테스크>, KBS <9시뉴스>, 그리고 SBS <8시뉴스>를 선정하여 2009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보도된 총 214건을 대상으로 보도형식과 내용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산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일화중심 프레임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 3사는 용산참사에 대하여 주로 철거민들의 불법폭력과 난동, 과격시위, 강경투쟁 등 주로 사건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그러한 참사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결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용산참사 보도는 철거민을 상대로 한 폭력난동 강조 프레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텔레비전 보도는 용산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발생원인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심층보도는 생략한 채, 철거민 농성자들의 생존권 저항을 철거민 개인적 불법행위와 전철연의 집단적 일탈행위로 강조하여 묘사하였다.

셋째, 법질서 강조 프레임의 경우 주로 경찰 측 입장을 옹호하면서 사용된 보도프레임이다. 텔레비전 뉴스는 철거민의 과격한 투쟁방식과 전철연의 배후설과 폭력성을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여섯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질서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집행이 정당했다는 주장이었다. 비록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의 화재원인, 과잉진압, 불법 용역과의 유착 등 사회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공격적인 조기진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다. 또한 철거민 농성자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논란도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특공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넷째, 용산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는 철거민과 경찰 간의 화재원인에 대한 공방과 관련하여 단순 내용전달 프레임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즉 텔레비전 뉴스는 용산참사 내용을 단순보도 프레임으로 전달하면서, 사망자에 대한 경찰과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의 책임론을 주장한 철거민 측의 입장은 단순보도로 간략하게 처리한 채 불리하게 보도한 반면, 경찰·

검찰 측 주장은 유리하게 틀 지어 보도하였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경찰과 불법용역과의 유착관계, 철거민과 전철연의 배후설 입증 불가, 화염병 투척 철거민 특정 불가, 그리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늦장, 부실 그리고 편파수사 등에 대한 다수의 의혹들도 단순보도로 간단하게 처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유리한 형태의 보도로 일관하였다.

다섯째, 용산참사 관련 방송 보도는 정치적 성향 프레임에 통하여 언론이 사회적 부자와 재벌들에 관대하다는 기존의 주장(츨스키·허먼, 2002)을 뒷받침하고 있다. 용산참사는 근본적으로 재벌건설사들과 재개발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로, 재개발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과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sup>7)</sup>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뉴스는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시보다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안한 분쟁조정위 설치<sup>8)</sup> 등 형식적이며 근시안적인 보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방송이 재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개혁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폭력조직-재벌건설사-구청으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sup>9)</sup>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에 대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재벌건설사의 위안과 정치적 체제 안정이라는 사회적 전통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구조적인 사회변화보다는 기존질서에 대한 가치관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용산참사 관련 각 방송사의 뉴스보도는 프레임 특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경우, 타 방송사와는 달리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의 비율이 대체로 높은 반면, 폭력난동과 갈등대치 프레임의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KBS의 경우, 폭력난동과 단순보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SBS는 폭력난동과 정치적 성향의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BC의 경우 철거민의 주장에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한 반면, KBS와 SBS는 용산참사 발생에 대한 원인과 배경 등 갈등문제의 핵심은 회피한 채, 전철연의 개입과 시위주도, 과격한 투쟁방식, 경찰의 강경진압 불가피 등 공권력을 행사한 정부 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는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사건중심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본질적인 사안인 도시정비와 개발과 관련된 법제정비 문제점으로 인한 철거지역 세입자들의 보상체

7) 모든 재개발 갈등의 배후에는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구 재산권자에게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건설업자에게는 사업이익과 불로소득이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용산참사의 경우, 갈등 당사자는 개발 주체와 세입자였다. 개발 주체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가운데 세입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작 개발 주체의 불로소득을 줄여서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김윤상(2009. 2. 23). 용산참사의 배후는 토지 불로소득. 『한겨레』, 23].

8) 2009년 1월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용산참사를 계기로 재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도시정비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선대책은 근시안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도시정비제도 개선대책은 조정결과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조정결과에 불만을 품은 반대자가 또 다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둘째,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미흡하다. 즉 정부 대책에는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제안이 빠져 있다. 셋째,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 방안에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보상비를 노려 위장 전입하는 세력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 부담이 늘어난 건물주의 반발로 도시정비 사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이재선(2009. 3. 25). 근시안 정부대책, 또 다른 불씨 우려. 『한겨레』, 21].

9) 임주환(2009). 용산의 사각 동맹. 『한겨레21』, 748호, 12~19.

계의 난맥상 등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뉴스는 범질서 유지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법과 질서에 의한 기존질서 옹호에 주력하여 보도한 반면, 철거민은 폭력난 등 집단으로 묘사하면서 법적이고 일탈적인 집단으로 보도함으로써 불법과 폭력은 사회 안정을 위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경찰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방송 뉴스는 다수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찰 책임론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경찰의 긍정적 이미지 재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질서 확립을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뉴스 보도가 약자배려에 대한 외연적 공정성 원칙<sup>10)</sup>에도 어긋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의 사건 해결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층적이고 다양한 여론을 보도하기 보다는 사건중심의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주의적 역할만을 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요 언론들은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라가야만 했던 근본적인 원인 등은 방치한 채, 단지 화재원인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의 갈등대립 중심의 보도로 일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송뉴스는 국가에서 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 유가족의 주장과 요구보다는 경찰·검찰 등 주로 정부 측 입장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등 국가기관이나 사회적 엘리트 중심의 편향적인 보도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김유정, 2009).<sup>11)</sup>

그러나 용산참사에 대한 뉴스보도의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용산참사 관련 방송 뉴스에 대한 보도영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뉴스텍스트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특정 이슈보도에 나타난 주요 프레임 기제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둬 따라 프레임의 효과분석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방송 보도의 뉴스 프레임이 실제로 수용자들의 이슈에 대한 지각이나 여론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용산참사 뉴스에 대한 보도영상과 수용자에 대한 효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10) 뉴스의 외연적 공정성이란, 언론이 '자연적으로 편재하는 담론 권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개인, 집단, 세력은 다른 개인, 집단, 세력에 비해 더 큰 담론 권력을 차별적으로 누리는데, 언론이 여기에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담론 권력을 덜 누리려는 개인, 집단, 세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이준용, 2008).

11)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용산참사 언론보도 진단 토론회에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용산참사에 대한 비평에서 언론은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서민 등 이 사건의 구조적 본질을 방치한 채 국가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지한 보도를 이어가거나, 철거민들이 골프공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하는 지엽적 문제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 2009. 2. 3).

■ 참고문헌 ■

- 강내원 (2007). 사회적 배제 대상으로서의 노숙인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보』, 8호, 203~231.
- 강명구 (1990). 한국 TV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연구원. 『TV뉴스보도』, 3~133.
- 권혁남 (2001). TV 방송의 사회갈등 조정역할에 관한 연구: 의학분업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5권 1호, 45~84.
- 김동규 (2000). 사회갈등에 관한 보도 및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2000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53~82.
- 김선남 (2002). 매대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2~76.
- 김원용 · 이동훈 (2005).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방송학보』, 19권 4호, 168~213.
- 김윤상 (2009. 2. 23). 용산참사의 배후는 토지 불로소득. 『한겨레』, 23
- 김훈순 (1998). IMF 체제의 경제위기와 텔레비전 뉴스 담론: 금 모드기 운동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138~163.
- 나미수 (2004).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26호, 157~207.
- 백선기 (2000). 한국 TV 뉴스보도의문제점 및 개선방안: 뉴스의 재현현상을 중심으로. 성대 언론정보대학원 ·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 언론보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문.
- 성한용 (2009. 1.29). 청계천 이명박, 용산 이명박. 『한겨레』. 23.
- 송정민 (1992). 언론의 이념성 유지기제로서의 뉴스구성 원칙과 관행. 『한국언론학보』, 27호, 272~278.
- 송용회 (2005).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프로그램/텍스트』, 125~157.
- 송종길 · 이동훈 (2003). 『사회위기와 TV저널리즘』.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03-1.
- 심 훈 (2004).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분석: 허만과 촛스키의 프로파간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1호, 57~83.
- 양 춘 · 박상태 · 서현호 (1996). 『사회학개론』. 서울: 진성사.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가을호, 85~142.
- 이준웅 · 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공정성, 타당성, 진정성. 『방송연구』, 겨울호, 9~44.
- 우병동 (2005). 절반의 진실로 갈등 증폭 말아야. 『신문과방송』, 12월호, 24~27.
- 이은미 · 이종수 (1995). 공중파 TV와 케이블 TV뉴스 비교분석: KBS, MBC, SBS, YTN 뉴스 비교분석. 한국언론연구원. 『다채널 다매체 시대 TV뉴스』, 67~124쪽.
- 이정춘 (2000). 사회갈등과 방송의 사회적 기능.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2~24쪽.
- 이재선 (2009. 3. 25). 근시안 정부대책, 또 다른 불씨 우려. 『한겨레』, 21.



- 이효성 (1996). 『한국사회와 언론』. 서울: 아침.
- 임주환 (2009). 용산의 사각동맹. 『한겨레21』, 748호, 12~19.
- 정재철 (2001). 미국 대 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저녁9시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343~359쪽.
- 정의철 · 이창호 (2007).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즈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84~110.
- Bacon, M. (2001). Criticizing the critics: L.A. Times' David Shaw and his detracto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16, 21~34.
- Entman, R.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 in narrative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1), 6~38.
- Entman, R.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s of a fractures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Fields, E. E. (1984). *Preachers, press and politics: The media career of a conservative social movement*.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Oregon.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1~37.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rman, E., & Chomsky, N. (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정경옥 역(2006). 『여론조작: 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 서울: 에코리브르.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 Iyengar, S. (1991).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 365~383.
- McComb,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187.
- Mayeux, P. E. (1991). *Television news*. Wm. C. Brown Communication, Inc., 김홍규 (1993). 『방송뉴스론』. 서울: 나남.
- McChesney, R. W. (1999). *Rich media, poor democracy: Communication politics in dubious times*. New York: The New Press.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박홍수 (1995). 『메이킹 뉴스』. 서울: 나남.

최초 투고일 2009년 6월 3일

게재 확정일 2009년 7월 18일

논문 수정일 2009년 7월 28일

## A Comparative Analysis of News Frame of Social Disputes on the Selected TV News

: The 2009 Youngsan Accident through MBC, KBS, SBS News

Yang-June Im

Lecturer, Dept. of Mass Media & Political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Critical communication scholars believe that TV news reproduce a dominant sociological ideology. They also say that TV news reflects not only realities but also constructs realities through the selection and exclusion of news items. Based on these theoretical assumptions, this paper examined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ews frames on the Youngsan Accident in 2009. This research selected 214 news clips from MBC News Desk, KBS 9 O'clock and SBS 8 O'clock News aired from January 20 through February 10, 2009.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mount of episodic frames is much more than that of the thematic frames. Second, the ratio of the major actors and interviewers f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such as ruling Grand National Party, district attorney and national police surpassed the protesters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us broadcast companies actively reported voices of authorities speaking for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protesters, the social weakners in Youngsan. At the same time, the news framed the protesters and NGO which supported the social weakners as illegal and violent riot actors by focusing in the eyes of the social elite groups, the government authorities.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the news stories on the Youngsan were biased, because the dailies did not cover what the protesters and civil organizations demanded through the redevelopment projects, but delivered the news justified the illegal acts quelled by police commando. Thus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press did not play a major role for a social mediator between conflict parties, but rather actively supported in favor of the governmental elite groups in a social conflicts.

Key words : News frame, Social disputes, Fair press, Social elites, Youngsan Accident.